DBpia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3, 615-631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 경험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와 관련 변인 분석

양 돈 규†

세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1개 대학교의 2학년 및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1,410명이었다.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의 유무 및 빈도, 그리고 학업성적(평균평점) 등을 알아보는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다수(약 69%)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시험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경험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 그리고 시험부정행위와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험부정행위경험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집단에 비해 남학생집단의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험부정행위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시험부정행위 경험이 없는 집단의 학업성적(평균평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점 및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지각, 학업성취

양돈규는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양 돈 규,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1-1,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전화 : 043-649-1362 E-mail : ydk9498@hanmail.net

www.dbpia.co.kr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이나 무질서, 이기주의 경향 등과 같은 문제들과 정의, 질서 및 도덕성 등과 같은 사회적 과제들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해결과제가 사회의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부정이나 무질서 등의 문제 현상들과 정의, 질서 및 도덕 등의 과제가 특정인이나 집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 적용되는 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해결과제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이고 있는 부정행위, 특히 학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학업부정행위를 연구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흔히 학업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지칭할 때 학업부정행위나 시험부정행위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학업부정행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학점을 보다 잘 받기 위해 부당한 방법의 학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학점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오영희, 1995).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업부정행위에는 시험시간에 교사(또는 교수나 감독자) 몰래 참고서나 교재에서 답을 베끼는 부정행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치게 하는 보다 더 심각한 부정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오영희, 1995).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부정행위에는 시험시간에 답안을 정리한 페이퍼나 책상 위에 기록한 내용을 몰래 보는 행위,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보고 답을 베끼거나 답을 맞추어보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시험지를 바꾼 후에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리고 대리시험을 치거나 부탁하는 행위 등의 시험부정행위가 있고, 이외에도 출석부정행위(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대신 해주는 행위 등), 과제부정행위(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베끼는 행위, 그리고 인터넷에서 퍼온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는 행위 등)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시험부정행위는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관련하여 또는 시험상황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학업부정행위의 일부분 또는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학업부정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는 시험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한 대학신입생이 쓴 시사적인 글 한 편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 대학신입생이 대학에 들어온 이후 1년을 보내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심각한 시험부정행위의 문제를 곁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소감과 견해를 모 일간신문(문화일보, 1998. 1. 1일자)에 기고한 글이다.

"대학 1학년생이다. 올해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대학에서도 잘못된

www.dbpia.co.kr

게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 중 나를 가장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커닝이었다. 한 학기에 두 번씩 시험을 치르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커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강의실 책상은 커닝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써놓은 내용으로 까맣게 되어 있다. 시험기간 동안 복사실은 축소복사를 하려는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객관식 시험이 있는 날이면 호출기를 통해 정답을 주고받는다. 책을 꺼내 베끼는 것은 이미 낯선 장면이 아니다. 취직을 위하여 학점을 잘 따려는 학점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잘못된 현상이다. 학점만 잘 받으면 어떠한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열심히 공부하는 순진한 학생들의 의지를 무참히 깨버린다. 사회의 중심이 될 대학생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잘못된 수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위의 글은 한 대학신입생이 자신의 대학생활 1년을 보내면서 목격해 온 대학생들의 시험관련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동시에 그 결과가 갖는 함의 및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시험부정행위는 사회의 중심이 될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생들이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좋은 학점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인 시험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도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신입생의 글이 시사해주는 시험부정행위의 중요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적 또는 학점을 얻으려 하는 정직한 학생들의 의지를 깨뜨리게 되고, 나아가 이들마저도 보다 손쉽게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시험부정행위의 유혹에 빠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위의 글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다소 과장한 글일 수도 있다. 또한 위 글의 내용은 특정 대학의 일부 학생들에서 나타난 문제일 뿐 우리 사회 전체 대학 및 전체 대학생들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학생들의 시험 및 학업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보고 및 연구들은, 위에 제시된 한 대학신입생의 글이 일부 대학이나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많은 대학들에서 많은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31개 대학의 600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McCabe, 1992)에서는 약 67%의 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보고서(Davis, Grover, Becker, & McGregor, 1992)에서는 대학에 따라 약 90%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학업부정행위 비율은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문화일보, 1997. 2. 6일자; 오영희, 1999).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보고 및 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이 시험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정행위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김홍길, 1992; 동아일보, 2002. 10. 15일자; 문화일보, 1997. 2. 6일자; 1998. 1. 1일자; 오영희, 1995; 오영희, 1999; 조선일보, 1999. 6. 10일자; 2002. 5. 14일자; 한국일보, 1999. 3. 31일자). 특히 이들 조사보고 및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시험관련 부정행위 경험비율을 보면, 대략

www.dbpia.co.kr

30%에서 70% 이상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각각의 조사 및 연구들이 이루어진 시기와 대상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문제와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이 조사 및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험관련 부정행위 경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기독학생회(IVF)가 S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재학생 398명 가운데 약 30%가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고, 또한 대리출석과 리포트 베끼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약 66%와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2. 10. 15일자). 이러한 시험관련 부정행위 경험비율은 과학영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모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조선일보, 2002. 5. 14일자). 특히 이 조사에서 나타난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보면, '옳지 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과 '대학생활 중 몇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3.3%와 23.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반응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 여대에서 실시된 조사결과(한국일보, 1999. 3. 31일자)에서도, 조사대상 945명 가운데 과반수에 가까운 약 45%의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부정행위자 가운데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단 7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행하는 시험부정행위의 1차적 책임은 행위자 자신에게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수자나 관계기관에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위에서 제시된 연구들에 비해,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경험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전국 4년제 대학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김홍길(1992)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들 가운데 70% 이상의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있었고, 특히 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 11%의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더 최근에 서울과 지방의 3개 남녀공학대학교에 재학중인 69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영희의 연구(1999)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학업부정행위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학업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약 80%의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이들 가운데 매우 많은 비율의 대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부정행위항목별로 알아보면, 먼저 '시험볼 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쪽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59.6%), '책상, 벽, 손바닥, 지우개 등에 예상답안을 써 놓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57.4%), '시험볼 때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37.4%)', '감독자 모르게 노트나 책을 펴 놓고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27.2%), '시험 볼 때 다른 학생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14.2%),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시험을 대신하여 치르게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7.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조사된 여러 항목의 시험부정행위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60%를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

www.dbpia.co.kr

사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조사보고 및 연구들은 매우 많은 대학생들이 시험을 포함한 학업관련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성행동(sexual behavior)이나 불법행위(illegal activity)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응답을 회피하거나 거짓응답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Clark & Desharnais, 1998), 이 점을 고려한다면 시험부정행위를 포함한 학업부정행위 경험자의 실제 비율은 선행 조사보고서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비대학생집단에 비하여 대학생들이 더 많은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Murdock, Hale, & Weber, 2001)은 앞으로 대학생집단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다른 한편, 위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학업관련 부정행위 경험비율이 조사대상 국가, 지역, 학교 및 조사시기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오면서 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Murdock, Hale, & Weber, 2001; Schab, 1980a; Schab, 1980b; Schab, 1991),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학생집단에 비해 남학생집단에서 학업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현저, 1994; 오영희, 1999; Calabrese & Cochran, 1990; Davis 등, 1992; Murdock, Hale, & Weber, 2001; Newstead, Franklyn-Stokes, & Armstead, 1996). 그러나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Houston, 1983). 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서 더 많은 학업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오영희, 1999; Newstead 등, 1996),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지역에 비해 지방소재 대학의 학생집단에서 학업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를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성공압력이 낮은 학생집단에 비해 성공압력이 높은 학생집단에서 시험부정행위나 학업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현저, 1994; 오영희, 1999). 또한 이공계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업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Newstead 등, 1996). 이외에도 시험부정행위 및 학업부정행위는 반사회적 성향(송현저, 1994) 및 시험불안(김도균, 2001) 등의 변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험부정행위를 다룬 김홍길의 연구(1992)를 보면,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부정행위의 수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약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웠다'는 응답 대신에 '기분이 좋았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또는 '약간 찝찝했다' 정도의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도덕불감증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95% 이상의 학생들이 옆사람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감독에게 알리기'나 '나무라기' 등과 같은 부정행위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사회나 기성세대의 부정이나 부조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험부정행위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약 32%)은 낮았던 반면에, 시험부정

www.dbpia.co.kr

행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는 학생들의 비율(약 72%)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가 매우 뿌리 깊은 문제로서, 이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리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정행위의 이유로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2002. 10. 15일자). 또한, 학생들이 학업관련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 중에는 '대학생활의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학업관련 부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낭만에 비유할 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재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부정행위 가운데 시험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연구문제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험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경향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지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저지르는 시험부정행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 그리고 학업성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에 따라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험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에 따라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1개 대학교의 2학년 및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1,410명으로 학년별로는 2학년집단이 805명(남학생집단 520명, 여학생집단 285명)이었고, 3학년집단이 605명(남학생집단 347명, 여학생집단 258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학년 집단이 21.2세(남학생집단 21.8세, 여학생집단 20.0세)였고, 3학년집단이 22.5세(남학생집단

www.dbpia.co.kr

23.7세, 여학생집단 21.0세)였다.

조사도구

본 조사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기본적인 문항인 학년, 성별 및 연령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과 함께, 주요 변인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의 유무 및 빈도, 그리고 학업성적(평균평점)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는 문항(1개)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함, ② 부정적으로 생각함, ③ 그저 그렇게 생각함, ④ 긍정적으로 생각함, 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부정행위경험을 알아보는 문항(2개)은 10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지난 학기(2002학년도 1학기) 동안에 시험에서 부정행위(컨닝)를 한 경험을 알아보는 문항(1개)은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⑦ 6회, ⑧ 7회, ⑨ 8회, ⑩ 9회 이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 시험에서 행했던 전체 부정행위(컨닝) 경험을 알아보는 문항(1개)은 ① 없음, ② 1~3회, ③ 4~6회, ④ 7~9회, ⑤ 10~12회, ⑥ 13~15회, ⑦ 16~18회, ⑧ 19~21회, ⑨ 22~24회, ⑩ 25회 이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학업성적(평균평점)을 알아보는 문항(1개)은 지난 학기(2002년도 1학기)에 받은 학점(평균평점: 4.5만점 기준)을 묻는 질문으로, 마찬가지로 10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① 0~0.5 미만, ② 0.5 이상~1.0 미만, ③ 1.0 이상~1.5 미만, ④ 1.5 이상~2.0 미만, ⑤ 2.0 이상~2.5 미만, ⑥ 2.5 이상~3.0 미만, ⑦ 3.0 이상~3.5 미만, ⑧ 3.5 이상~4.0 미만, ⑨ 4.0 이상~4.5 미만, ⑩ 4.5(만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절차 및 분석

자료조사는 조사대상 학교의 2~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에게 준비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배포한 후에 회수된 질문지들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일부를 제외한 후, 나머지 1,410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상관분석, t검증 및 2원변량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결 과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경험비율

대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시험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 경험자의 수와 비율을 알아보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69%의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해 오는 동안 시험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었고, 시험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약 3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집단에서의 시험부정행위 경험자 비율

www.dbpia.co.kr

표 1. 학년 및 성별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경험자수 및 비율 <단위: 명(%)>

학 년	시험부정행위 경험	성 별		전 체
		남학생	여학생	
2학년	없음	152(33.0)	87(33.2)	239(33.1)
	있음	309(67.0)	175(66.8)	484(66.9)
3학년	없음	83(26.6)	76(32.2)	159(29.0)
	있음	229(73.4)	160(67.8)	389(71.0)
전 체	없음	235(30.4)	163(32.7)	398(31.3)
	있음	538(69.6)	335(67.3)	873(68.7)

(66.9%)에 비해 3학년집단에서의 시험부정행위 경험자 비율(71.0%)이 더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집단에서의 시험부정행위 경험자 비율(67.3%)에 비해 남학생집단에서의 시험부정행위 경험자 비율(69.6%)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시험부정행위(1학기)'는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이루어진 시험부정행위경험을 나타내며, '시험부정행위(전체)'는 대학생활을 해 온 전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시험부정행위경험을 나타낸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1학기)간의 관계(r=.317, p<.01), 및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전체)간의 관계(r=.303,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또한 시험부정행위(1학기)와 시험부정행위(전체)간의 관계(r=.726, p<.01)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r=-126, p<.01), 시험부정행위(1학기)와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r=-.160, p<.01), 그리고 시험부정행위(전체)와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r=-.106,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간의 상관행렬표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 (1학기)	시험부정행위 (전체)	학업성적 (평균평점)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317**	.303**	-.126**
시험부정행위 (1학기)			.726**	-.160**
시험부정행위 (전체)				-.106**

** p<.01

www.dbpia.co.kr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의 차이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평균평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평균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평균평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세 차례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1학기)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390)=4.820$, $p<.05$). 구체적으로, 이 결과는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표 3.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성 별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 (1학기)	시험부정행위 (전체)	학업성적 (평균평점)
2학년	남학생	평균	2.36	2.42	2.78	6.00
		표준편차	.93	1.86	1.95	2.04
	여학생	평균	2.34	2.34	2.44	6.76
		표준편차	.85	1.54	1.52	1.95
	전체	평균	2.35	2.39	2.66	6.27
		표준편차	.90	1.75	1.81	2.04
3학년	남학생	평균	2.33	2.41	3.14	6.46
		표준편차	.93	1.61	2.10	2.07
	여학생	평균	2.35	2.10	2.69	6.90
		표준편차	.92	1.35	1.76	1.96
	전체	평균	2.34	2.28	2.95	6.65
		표준편차	.93	1.51	1.97	2.03
전체	남학생	평균	2.35	2.42	2.92	6.18
		표준편차	.93	1.76	2.02	2.06
	여학생	평균	2.34	2.22	2.56	6.83
		표준편차	.89	1.45	1.64	1.96
	전체	평균	2.35	2.34	2.78	6.43
		표준편차	.91	1.65	1.89	2.05

www.dbpia.co.kr

표 3-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의 차이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2.556E-02	1	2.556E-02	.031
성별	3.721E-03	1	3.721E-03	.004
학년×성별	.180	1	.180	.217
집단내	1158.544	1392	.832	
전 체	1158.805	1395		

표 3-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1학기)의 차이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4.888	1	4.888	1.795
성별	13.127	1	13.127	4.820*
학년×성별	4.364	1	4.364	1.603
집단내	3785.431	1390	2.723	
전 체	3805.780	1393		

*$p<.05$

표 3-3.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학업성적(평균평점)의 차이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	*F*
학년	30.160	1	30.160	7.422**
성별	117.473	1	117.473	28.907***
학년×성별	8.622	1	8.622	2.122
집단내	5681.176	1398	4.064	
전 체	5865.927	1401		

**$p<.01$ ***$p<.001$

한 학기 동안에 이루어진 시험부정행위경험에서 여학생집단에 비하여 남학생집단의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유의하게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표 3 참조).

한편,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 및 성별에 따른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년별 차이: $F(1, 1398) = 7.422$, $p<.01$; 성별 차이: $F(1,1398)=28.907$, $p<.001$). 구체적으로, 이 결과는 학년간의 차이에서는 2학년집단에 비하여 3학년집단의 학업성적(평균평점)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별 차이에서는 남학생집단에 비해 여학생집단의 학업성적(평균평점)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 참조).

www.dbpia.co.kr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의 차이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분석대상자들을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두 집단(부정적 지각집단과 긍정적 및 중도적 지각집단-이하 '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으로 표기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간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차례의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과 긍정적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집단(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을 비교한 결과, 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이 부정적 지각집단에 비하여 시험부정행위경험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t(1378) = -9.125$, $p<.001$). 이러한 결과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즉, 잘못된 행위라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시험부정행위를 적게 하는 반면에,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긍정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시험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른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과 긍정적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집단(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을 비교한 결과, 부정적 지각집단의 학업성적(평균평점)이 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386) = 3.086$, $p<.01$). 이러한 결과는 시험부정행위를 부정적으로(즉, 잘못된 행위라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적(평균평점)이 높은 반면에,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긍정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표 4-1.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의 차이

독립변인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시험부정행위 (1학기)	부정적 지각집단	718	1.95	1.24	-9.125***
	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	662	2.74	1.93	

*** $p<.001$

표 4-2.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른 학업성적(평균평점)의 차이

독립변인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성적 (평균평점)	부정적 지각집단	724	6.63	1.99	3.086**
	긍정 및 중도적 지각집단	664	6.30	2.03	

** $p<.01$

www.dbpia.co.kr

대학생일수록 학업성적(평균평점)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에 따라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분석대상자들을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실시되었던 시험에서 부정행위경험이 없는 집단(시험부정행위 無집단)과 부정행위경험이 있는 집단(시험부정행위 有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간 학업성적(평점평균)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시험에서 부정행위경험이 없는 집단과 부정행위경험이 있는 집단간에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있는 집단(시험부정행위 有집단)에 비하여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없는 집단(시험부정행위 無집단)의 학업성적(평점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387)=7.109$, $p<.0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 경험자의 비율,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평균평점) 등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에 따라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섯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를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69%의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해 오는 동안 시험부정행위를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선행연구들(김홍길, 1992; 동아일보, 2002. 10. 15일자; 문화일보, 1997. 2. 6일자; 1998. 1. 1일자; 오영희, 1995; 조선일보, 1999. 6. 10일자; 2002. 5. 14일자; 한국일보, 1999. 3. 31일자)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경험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문제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다루어가야 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 2학년집단에 비해 3학년집단의 시험부정행위 경험비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집단에 비해 남학생집단의 시험부정행위 경험비

표 5.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1학기)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성적 (평균평점)	시험부정행위 無집단	536	6.91	1.85	7.109***
	시험부정행위 有집단	853	6.13	2.09	

*** $p<.001$

www.dbpia.co.kr

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먼저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경험(1학기)간의 관계, 및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경험(전체)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잘못된 것으로) 지각하기보다는 긍정적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일수록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이루어진 시험부정행위경험(시험부정행위경험<1학기>)과 대학생활을 해 온 전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시험부정행위경험(시험부정행위경험<전체>)간의 관계에서는 높은 정적 상관(r=.726, p<.01)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가 대학생활을 통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시험부정행위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시험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 시험부정행위(1학기)와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 그리고 시험부정행위(전체)와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정행위를 통해 시험을 더 잘 보려고 했던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오히려 학업성적(평균평점)이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결과는 시험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일수록 학업성적(평균평점)은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향후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문제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평점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에서는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부정행위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지각에 있어서 학년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시험부정행위경험(1학기)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시험부정행위경험(1학기)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집단에 비하여 남학생집단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집단에 비해 남학생집단의 학업부정행위경험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송현저, 1994; 오영희, 1999; Calabrese & Cochran, 1990; Davis 등, 1992; Murdock, Hale, & Weber, 2001; Newstead 등, 1996)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는 학년 및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간의 차이에서는 2학년집단에 비하여 3학년집단의 학업성적(평균평점)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남녀간의 차이에서는 남학생집단에 비해 여학생집단의 학업성적(평균평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시험부정행위경험 및 학업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은 부정적으로 지각하

www.dbpia.co.kr

는 집단에 비해 시험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반면에, 학업성적(평균평점)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흔히 예상해 온 것처럼, 시험부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즉, 잘못된 행위라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시험부정행위를 적게 하는 반면에,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시험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부정행위를 부정적으로(즉, 잘못된 행위라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적(평균평점)이 더 높은 반면에,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및 중도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적(평균평점)이 더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끝으로,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에 따라 학업성적(평균평점)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시험부정행위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하여 시험부정행위 경험이 없는 집단의 학업성적(평점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부정행위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오영희, 1999; Newstead, Franklyn-Stokes, & Armstead, 1996)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시험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시험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학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현상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어 온 시험부정행위문제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시험부정행위경험자의 비율을 알아보았고, 또한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수준, 시험부정행위 경험수준 및 학업성적(평균평점)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학생들의 의식변화(약 65%)'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도 및 절차상의 보완(약 25%)'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2. 10. 15 일자). 이러한 학생들의 견해는 대학에서의 학업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같은 '제도 및 절차상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잘못된 나쁜 행동'이라는 의식을 갖추어 가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옛날 우리 나라 속담 중에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적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문제도 학생들 스스로의 의식변화 없이 감독이나 제도만으로는 해결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듯 최근 몇 몇 대학의 학생 자치단체에서는 '시험때 커닝 않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대학생들의 학업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업관련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정부 및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전반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시험 및 학업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오영희, 1995). 이 방안들 가운데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제안들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정직한 학업행위와 부정직한 학업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둘째, 학습

www.dbpia.co.kr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해 준다. 셋째,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학업활동에는 점수배점을 적게 한다. 넷째, 교과목과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 요구사항은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는 부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섯째, 적절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시험은 수업시간에 다룬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출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시험은 부정행위를 유발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하기 어려운 시험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전후의 시험지 관리 철저, 시험장소에서 학생들간의 간격을 충분히 넓히기, 시험감독 철저, 학생들간의 의사교환 차단, 그리고 학생 신분확인 등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업관련 부정행위학생에 대한 학교법정 시스템의 운영(조선일보, 2002. 1. 21일자)이나 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리포트를 베끼는 부정행위의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한겨레신문, 2001. 5. 10일자) 등도 시험 및 학업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 전체 학년 및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 나라 전체 대학생들에게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김도균 (2001). 여고생의 학업부정행위 경향성에 대한 원인 및 시험불안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길 (1992). 시험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5호, 55-69.

동아일보 (2002. 9. 1일자). 사이버커닝 형사처벌 논란.

_____ (2002. 10. 15일자). 서울대생 30% "컨닝 경험 있어".

문화일보 (1997. 2. 6일자). 대학생 90% 시험중 부정행위경험.

_____ (1997. 3. 1일자). 대학생 시험부정행위 학교당국 뒷짐.

_____ (1998. 1. 1일자). 대학 시험부정행위 만연 학생들 도덕불감증 우려.

송현저 (1994). 시험부정행위와 성(性), 내·외적 성공 기대, 반사회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영희 (1995).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제11집, 덕성여자대학교, 51-78.

오영희 (1999). 한국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6(2), 64-85.

정철 (1996). 초등학교 학생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방법과 이유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1999. 6. 10일자). 대학생 커닝 부끄러워.

_____ (2001. 6. 26일자). 문자메시지 이용·인터넷 정보 복사 급증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용 S/W 도입 잇따라.

_____ (2002. 1. 21일자). 스탠퍼드大 학교법정...부정행위 강력처벌.

_____ (2002. 5. 14일자). KAIST학생 30% 커닝 경험.

_____ (2002. 5. 21일자). "커닝하지 맙시다" 서명운동.

www.dbpia.co.kr

한겨레신문 (2001. 5. 10일자). 미 대학, 첨단기술 이용 시험부정 대량 적발.

한국일보 (1999. 3. 31일자). 이대 '시험부정행위 근절' 캠페인.

Calabrese, R., & Cochran, J. T. (1990). The relationship of alienation to cheating among a sample of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3*, 65-72.

Clark, S. J., & Desharnais R. A. (1998). Honest answer to embarrassing questions: Detecting cheating in the randomized response model. *Psychological Methods*, *3*(2), 160-168.

Davis, S. F., Grover, C. A., Becker, A. H., & McGregor, L. N. (1992). Academic dishonesty: Prevalence, determinants, techniques, and punishments. *Teaching of Psychology*, *19*(1), 16-20.

Houston, J. P. (1983). College classroom cheating, threat, sex and prior performance. *College Student Journal, 17*, 229-235.

McCabe, D. L. (1992).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ethics on cheating among college students. *Sociological Inquiry*, *62*(3), 140-144.

Murdock, T. B., Hale, N. M., & Weber, M. J. (2001). Predictors of cheating among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 96-115.

Newstead, S. E., Franklyn-Stokes, A., & Armstead, P.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students chea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2), 229-241.

Schab, F. (1980a). Cheating in high school: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revisited). *Adolescence*, *60*, 959-965.

Schab, F. (1980b). Cheating among college and non-college bound pupils, 1969-1979. *Clearing House*, *53*, 379-380.

Schab, F. (1991). Schooling without learning: Thirty years of cheating in high school. *Adolescence*, *26*, 839-847.

원 고 접 수 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6. 30
게 재 결 정 일 : 2003. 9. 5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3, 615-631

The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Perception and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Don-Kyou Yang
Se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perception and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1,410 undergraduates who are attending the second and third grade of one university in Chungbuk. They were asked to rate the questionnaires concerning perception and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 Statistical procedures were frequencie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two-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sults showed that undergraduates' cheating in examinations was wide spread. (2)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 and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But there were nega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 of cheating in examin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between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3) There was not difference in the level of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by grades, bu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level of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by sexes. That is, the level of behavior of cheating in examinations was higher in the male undergraduates than the female undergraduates. (4)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in the undergraduates of nonexistence of cheating in examinations than the undergraduates of existence of cheating in examination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 perception of cheating, cheating in examination, academic achievement

www.dbpia.co.kr